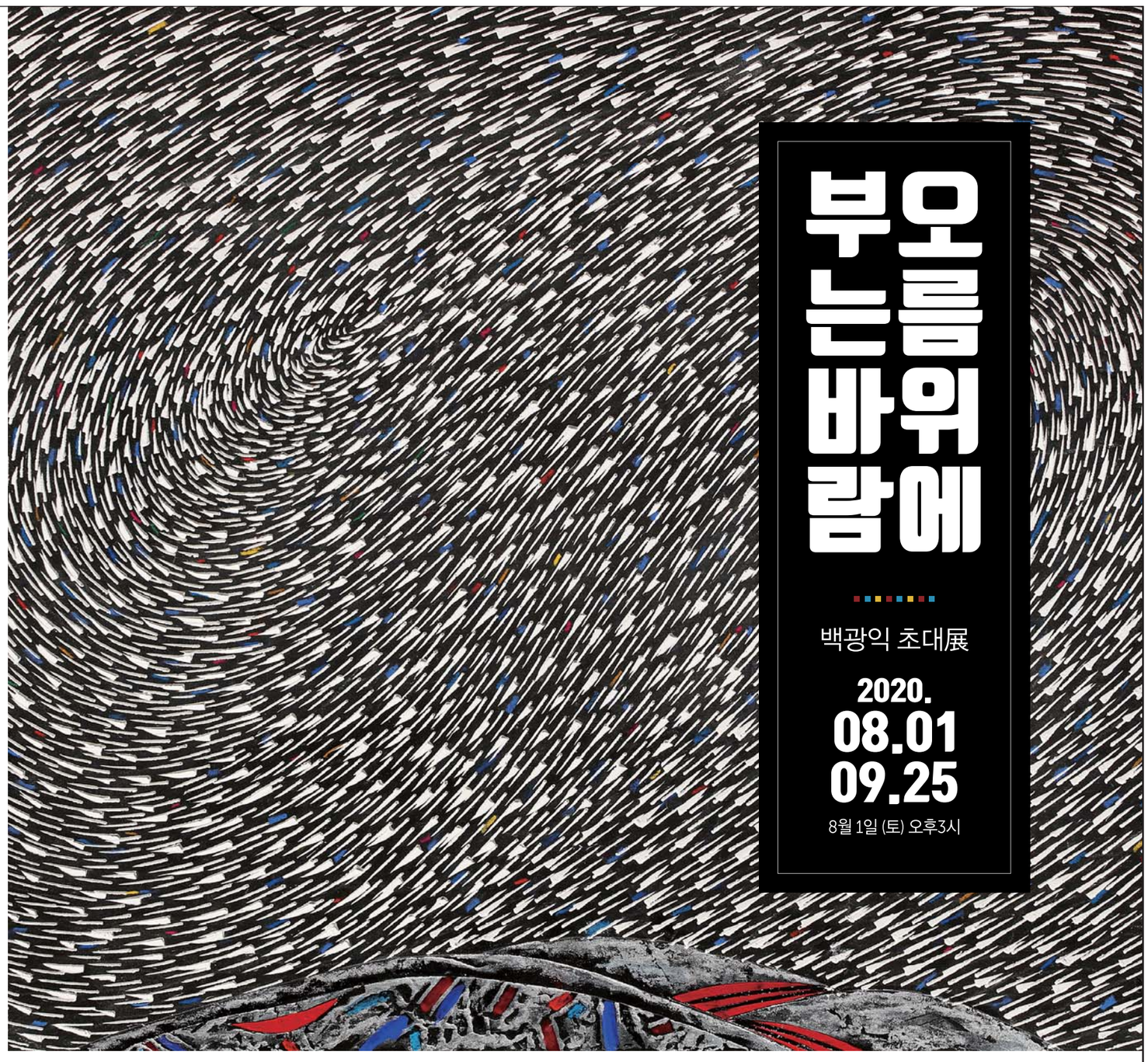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연 '갤러리ED'가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두 번째 전시로 백광익 작가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백광익 작가는 제주 토박이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고 현재 까지도 고향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추상미술 첫 세대의 작가입니다. 오름, 별, 바람 등의 소재를 추상화한 백광익 작가의 그림은 그동안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성과 영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라일보는 '갤러리ED'를 통하여 제주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전시, 보고 싶은 전시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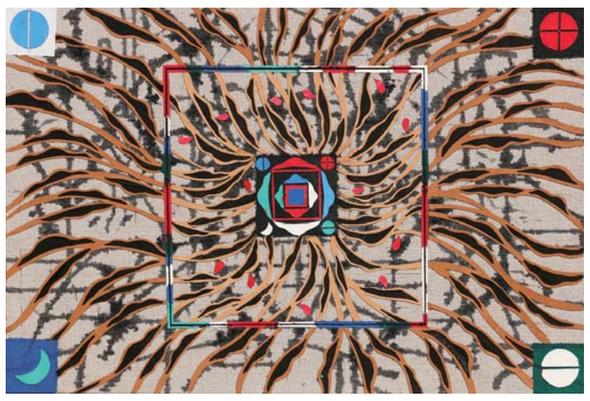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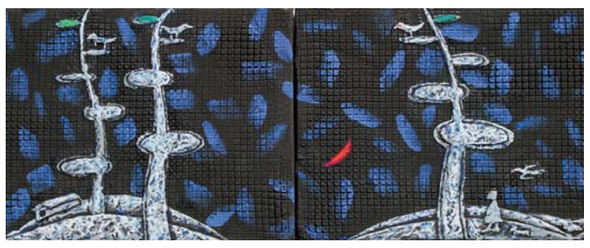
관람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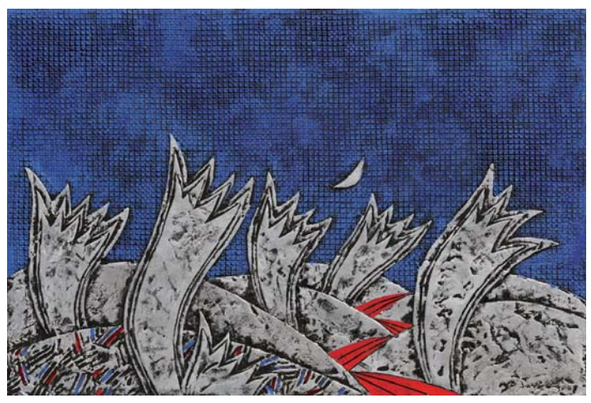
평일	Open 11:00 / Close 18:00	주말 (土.日)	Open 11:00 /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41×24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5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27×19×2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2cm | 2020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1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45×27cm | 2020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ED